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61
2020 January / February

Special theme

셀피족(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 호 순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최근 돋보이는 트렌드 중 하나는 셀피(Selppy)입니다. 셀피는 Self(스스로)+Happy(행복한)의 합성어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 혹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2월호 스페셜 테마는 나날이 증가하는 셀피족을 위해 극심한 통증을 겪거나 생명에 지장을 느끼진 않지만, 시술이나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또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술을 소개합니다.

러브 라이프에서는 카메룬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낳은 미숙아를 돕기 위해 나선 한양대학교병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중한 한 생명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한양토픽에서는 위암 수술 3,000례를 달성한 권성준 외과 교수의 소식도 담았습니다.

2020년 한 해도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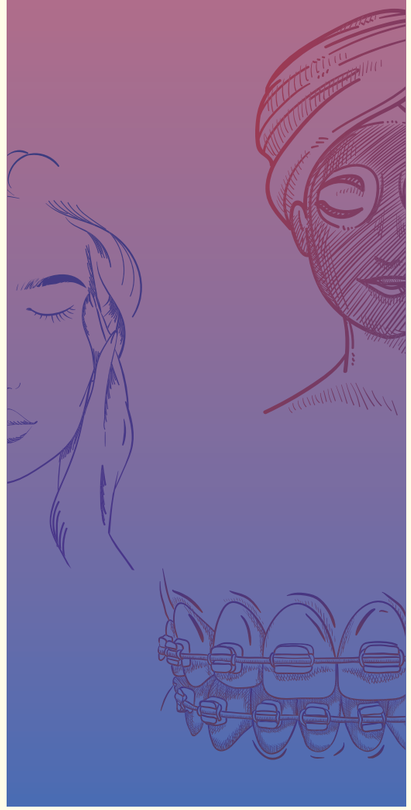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Vol.161 2020 January / February

365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 ❻

셀피족 (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셀피족은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 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창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08 **Love, Life** 카메룬 난민, 미숙아 돕기 프로젝트

14 **Special theme ❶**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위하여
16 **Special theme ❷** 동안 시술로 더 젊게 사는 법
18 **Special theme ❸**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 어떻게 개선할까?

20 **Hanyang Topic** 권성준 외과 교수 위암 수술 3,000례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배우 김정태와 간암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8 **Dr. Opera**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30 **Dr. Movie** 내 인생의 영화 3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메리 커셋의 당뇨 합병증
34 **고마운 당신에게** 신경과 권혁성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주목할 만한 연구** 유아기 스마트 기기 사용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38 **언론 속 한양인**
40 **한양뉴스**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외
43 **Hihy 건강저장소**
44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0년 1월 9일 통권 161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급실 전문의의 마음

김창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응급실에 오는 이에게는 일분일초가 생사를 오가는 사투의 현장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위태로운 응급실에서, 매 순간 경계를 넘나들며
분투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응급의학과 김창선 교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글. 권찬미 사진. 김재이



"협업이 기본입니다." 그의 답변에선 현장의 냄새가 풍겼다.
김창선 교수는 축구선수로 비유하자면 호날두보다는 메시 스타일의 의사다. 어시스트와 드리블, 패스를 적재적소에 하면서 때때로 본인도 골을 넣는 플레이 메이커. 미디어 속에 묘사되는 응급실 의사들은 스타플레이어로서 응급실 곳곳을 홀로 누비는 모습이 더 선명한데, 그는 왜 협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는 걸까?
"응급의학과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업무는 50% 정도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찾아온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가 골절상도 입고 뇌손상도 우려가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느 진료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어느 진료과가 메인이 되어 어떤 순서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초기 응급 처치를 하고, 적시에 각 진료과에 협조를 요청해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의학과는 긴급하게 이송되어 오는 환자와 병원의 각 진료과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실려 오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4만 7,000명. 하루에 100명 이상씩 구리·남양주 지역부터 양평·가평 지역에서까지 찾아온다. 환자 대부분은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질환의 내원 비율이 다른 지역 병원보다 높다. 이렇게 다양한 질환으로 매일 실려 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라고 그는 말한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50명이 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서무원, 보안요원, 응급원무과 그리고 응급영상의학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해나가는 일 또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된 일입니다."
그 답변을 들으니 촬영을 위해서 응급실에 들어서자 간호사와 환자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반긴 것이 떠올라 뒤늦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분들께
최고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발걸음으로 잇는 생명의 끈

김창선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에서 8년을 근무했다. 전임의 2년, 임상교원 3년을 거쳐 2017년부터는 3년째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규모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처음 왔을 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는 작은 과였고, 전문의도 1명, 전공의도 1~2명만 있었어요. 지금은 전문의만 6명, 전공의는 8명으로 늘었고. 간호사 수도 당시보다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낙후되어있던 시설과 시스템도 그간 리모델링 등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가시적 성과가 있고 응급의학과가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 업무에도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실습하던 중 평생의 은사를 만나기도 했다.
"본과 3학년 때 병원 실습을 돌면서 외과 정파종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교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파종 전 교수가 응급의학교실 초대 주임교수를 역임한 인연이 이어져 결혼식에 주례도 부탁했다. 지금도 의사로서 회의가 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선뜻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선배이자 멘토다.



전공의 4년, 전문의 11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달려온 15년. 바쁜 일상에 지칠 법도 한데 응급의학과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을까?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도 무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생사의 기로 앞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니까요. 4년 전쯤 응급실에 심정지로 내원한 5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가슴 압박을 하면 환자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리듬 확인을 위해 가슴 압박을 잠시 멈추면 심장이 멈춰 다시 의식이 없어졌었죠. 심정지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가슴 압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를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 환자분은 소생되어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향한 야무진 계획

"제 목표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그 수준의 규모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24개의 침상을 운영하는 비교적 작은 응급실을 30개 이상의 침상과 전용 입원 병실 및 응급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 센터급 규모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경기 동부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의 묵묵한 발전을 목도한 그였다. 병원과 함께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도약을 위한 가까운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분들께 최고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의 응급실 직접진료를 시행하면서 소아 전용 진료 공간을 마련하여 소아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앞으로 소아 전담 간호사 배치 및 전문의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는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쓰러진 환자가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을 해줘야 하고요. 요새는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응급 상황에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지 시 4분 이내에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쓰러진 환자는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호흡이 없을 때 가슴 압박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면할 수 없는 한 생명의 소중함

2015년 12월, 터키 남부 해변에서 발견된 난민 어린이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세계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은 설령 갈리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는 부정할 수 없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난민신청자 리세테 님과 그녀의 아기 제이든의 손을 잡아주었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25주 만에 태어난 난민신청자 아기

아기가 엄마 뱃속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약 40주. 10월 24일에 태어난 제이든은 그 기간에 한참 못 미치는 25주 만에 태어났다. 갓 태어났을 때 제이든의 몸무게는 불과 840g이었다. 일반적으로 재태 기간(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시간) 37주 혹은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미만이면 미숙아로 분류된다. 1.5kg 미만이면 극소 미숙아, 1kg 미만이면 초극소 미숙아에 해당한다.

리세테 님이 몇몇 병원을 돌아 한양대학교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수가 터진 지 10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산모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할 수 없던 급박한 상황 속에 의료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다. 바로 분만하지 않으면 태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의료진은 리세테 님을 바로 분만실로 옮겼고, 제이든을 받은 후 바로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다. 제이든을 치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는 "분만 후 시행한 태반 조직 검사에서 이미 태반이 염증으로 번져 있었다"고 전한다.

세상에 나온 제이든의 상태는 심각했다.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것은 물론 뇌실에 뇌출혈이 발생한 뇌수종증까지 발견되었다. 초극소 미숙아인 제이든은 뇌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바깥쪽에서 제이든의 뇌실까지 구멍을 뚫어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는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시술이다. 그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6주를 더 머물렀지만, 여전히 제이든의 몸무게는 극소 미숙아 기준인 1.5kg에도 못 미치는 1.2kg에 불과하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나오려면 최소 38주는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달은 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손길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지만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제이든의 치료비를 난민신청자인 산모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대사관 등을 통해 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인 리세테 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데다 본국의 지원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신 사실을 알릴 새도 없이 아기 아빠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후였다. 또한 그녀가 살던 지역 내부의 분쟁으로 본국의 두 오빠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카메룬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인재였지만 리세테 님의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은 녹록하지 않았다. 현재 머무는 시설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 취직하기도 했지만, 제이든이 태어나기 전 해고되고 만 것. 제이든과 리세테 모자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이들은 한양대학교병원 구성원들이었다. 전 교직원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팀은 근무하던 봉제공장에서 해고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리세테 님을 오랜 시간 상담하며 치료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다. 치료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했고, 어렵사리 치료비 일부를 모았다. 또한 출산 후 꼭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도 지원하는 등 가족 같은 보살핌과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한 직원은 산후조리에 보태라며 리세테 님에게 금일봉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러한 사연이 사내 통신망을 통해 알려지자 교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비 모금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또한 대외홍보팀 주선으로 경향신문(2019년 12월 4일자)에 제이든과 리세테 모자의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후원금을 보내왔다.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병원 사회복지팀 성명순 사회복지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가 강하게 다가왔다”고 말하며 인도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들 모자의 사연에 많은 공감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제 리세테 님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제이든의 장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이 쏟아지다가도 다시 입가에 미소가 돈다. 제이든이 건강하게 회복해 성장한다면, “자신의 고국인 카메룬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아픈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도 꾸어본다.

영국의 총리였고 문학가였던 처칠이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생명을 살리는 이들은 의사만이 아니다. 외면할 수 없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by 처칠

셀피족(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셀피족은 스스로(Self) 행복(Happy)을 찾아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타인의 기대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간다는 점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도 맥을 같이한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더 오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이들의 공통점일 터. 일상의 사소한 불편이나 질환이지만, 간단한 시술과 치료를 통해 훨씬 더 나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새해를 맞아 셀피족에게 더욱 행복을 안겨줄 방안을 소개한다.

주관적 건강상태

(*출처: 통계청, 2018 사회조사)



삶의 만족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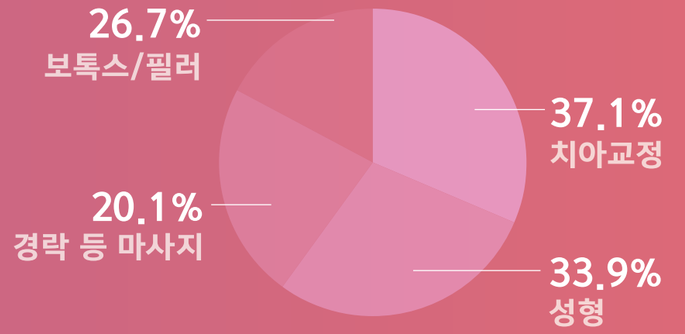
긍정 정서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외모관리를 위한 미용 시술에 대한 만족도

(*출처: 얼라인테크놀로지코리아, 여우야)

‘매우 만족’ 응답 비율



만족 이유: 얼굴형 교정, 인상 개선, 자신감 상승, 건강 개선 등

(2017년 10월 기준, 2030 여성 611명 대상, 복수 응답)

Special theme 01

셀피족(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위하여

주름치료와 메디컬 스킨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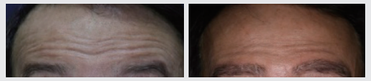


글. **고주연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피부과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부과적 치료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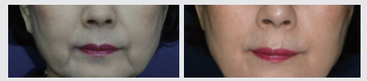
셀카를 찍다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색소나 주름이 보이게 되고 얼굴형이 너무 둥글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처진 얼굴살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던지 사마귀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청소년 시기에 생긴 여드름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색소가 침착되어 붉게 남은 피부흔적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 특히 이마에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톡스 주사 치료가 있다. 치료 전후 아래 사진과 같이 1분 간의 보톡스 주사 치료로 4~6개월 간의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전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하여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보다는 아래 사진과 같이 어느 정도 주름이 보이도록 치료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주름이 너무 심하고 표정을 짓지 않아도 주름이 선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보톡스만으로는 치료효과가 없고 프락셀 레이저와 같은 박피용 레이저나 피부하절개술(Subcision)과 같은 시술을 함께 해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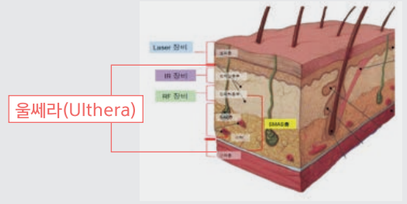


치료 전후 주름이 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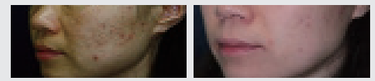
얼굴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노화과정으로 피부가 처진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히 팔자 주름이라고 하는 코주변 주름과 일명 불독 주름이라고 하는 입주위 처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의 처짐은 셀카를 찍었을 때 나이가 5~10년은 더 들어보이게 한다. 최근에 나온 고주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의료장비들이 이에 대한 치료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기가 울쎄라이다. 울쎄라는 피부노화로 인해 바뀐 얼굴의 윤곽선과 처진 피부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래 사진과 같이 치료 전에 코주변과 입주변의 처진 피부가 한 번의 치료로 탄력이 생기고 얼굴 윤곽이 더 부드러워지고 슬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쎄라 기기의 치료 원리는 기기에서 방출되는 응집된 초음파가 피부의 표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깊숙한 곳의 느슨해진 진피와 피하지방층을 조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 늘어진 피부를 조여주고 탄력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춘기 이후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피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드름과 이로 인한 붉은색 자국, 그리고 색소 침착으로 인해 갈색의 반점 등이 남게 되는 경우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는 것이 좋다. 메디컬 스킨케어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손상되고 예민해진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관리와 침착된 색소를 완화시키는데 도움되는 미백관리가 있다. 아래 사진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행한 환자의 전후 사진으로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보다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추천한다.



하지만 명확한 잡티나 검버섯이 있다거나 피부가 움푹 패이는 흉터가 생긴 경우라면 레이저 박피나 색소레이저 등과 같은 고강도의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부과적 치료법이 있다.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의와 자신의 피부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Special theme 02

셀피족(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동안 시술로 더 젊게 사는 법

필러의 종류와 주입 시 유의 사항



글. **이장현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형외과

시술 전 필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피부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얼굴에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소실되며, 피하지방과 피부의 접착성이 감소된다. 또한 피부 아래의 피하지방, 안면근육, 안면골 조직의 위축성 변화에 의하여 피부의 늘어짐이 심화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볼륨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깊은 주름과 소실된 볼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시행되는 시술 중에 하나가 필러 주입술이다. 필러(Filler)란 '채워주는 물질'이라는 의미다. 즉, 움푹 패이거나 함몰된 부위 또는 깊은 주름에 인체의 피부 조직성분과 비슷한 필러를 주입하여 꺼진 부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러시술이다. 안면부 주름 개선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던 필러가 현재는 안면부의 볼륨 증대를 위해서 사용되며 점차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피부 개선과 같은 영역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 성분도 1980년대에 콜라겐 필러가 출시된 이후 현재는 다양한 성분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필러의 사용 빈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각각의 성분에 따른 필러의 특징, 장단점 등은 잘 알지 못하고 시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간략하게 필러의 종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필러의 종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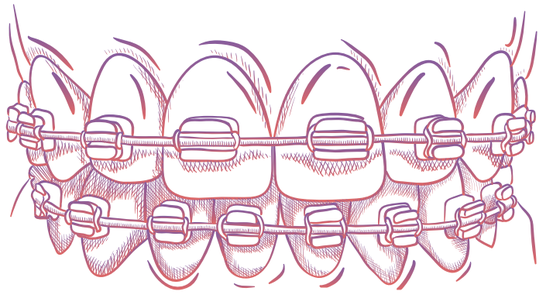
필러의 종류를 분류할 때 필러가 인체 내에서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단기 필러(Short-term Filler), 장기 필러(Long-term Filler), 영구 필러(Permanent Filler)로 나눌 수 있다. 단기 필러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이고 장기 필러는 Calcium Hydroxylapatite, Poly-L-lactic Acid, Poly-Caprolactone 성분이 있다. 또한 영구 필러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metacrylate) 성분과 폴리아크릴아미드(Polyacrylamide) 성분의 제품이 있다. 필러가 주입되었을 때 유지되는 기간은 시술 부위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단기 필러는 6~9개월, 장기 필러는 12~18개월, 영구 필러는 단어 뜻 그대로 영원히 녹지 않는 필러이다. 필러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영구 필러의 경우 일단 주입이 되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잘못 주입되거나 원하지 않은 모양으로 주입되었더라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만족스런 결과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한 별 문제없이 오랜 시일 동안 잘 유지되던 시술 부위가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나 이물 반응 등이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을 고려해 영구 필러는 시술 전 신중해야 한다.

단기 필러와 장기 필러를 비교했을 때도 장기 필러가 1년 이상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입된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교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필러가 자연적으로 소실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기 필러 중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는 히알루론산분해효소(Hyaluronidase)에 의해 필러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기 필러는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러들의 특징을 인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술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으로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필러를 선택하여 시술받아야 한다.

필러 주입술은 시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며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보톡스시술과 함께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혈관의 분포도가 높은 안면부의 해부학적 특성상 잘못 주입되면 혈관이 막혀 피부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시술받는 필러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술받는다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술 전 필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Special theme 03

셀피족(Selppy)을 위한 행복을 선물하다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 어떻게 개선할까?

보톡스·안면윤곽술·치아교정



글. **김주형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교정치료 전·후

투명교정장치는 탈착이 가능해 양치가 수월하고, 충치 관리에 용이하며 일반 교정보다 충치가 생길 확률이 적다.

안젤리나 졸리와 김태희, 두 인기 스타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뭘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턱의 모양이다.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체격은 크지만 얼굴은 작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서양에서는 각진 턱도 하나의 미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동양인의 경우 체격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커 보인다. 따라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각졌다면 더욱 넓적한 안면으로 보이기 쉽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태희와 같은 계란형의 얼굴을 보통 미의 기준으로 여긴다. 이러한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각턱 보톡스, 안면윤곽 보톡스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도 넘치고 있다. 심지어 최근의 스마트폰에서는 기본 카메라 옵션에 얼굴을 갸름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6개월마다 맞아야 하는 보톡스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경우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에서는 간단한 안면윤곽술을 시행한다. 간단한 안면윤곽술은 치아교합을 변화시키지 않고 얼굴뼈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형을 바꾸는 수술이다. 얼굴 전체의 윤곽을 정리해 주며, 이목구비 조화를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해 만족도 높은 얼굴형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안면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간단한 안면윤곽술을 시행해 교정할 수 있다. 간단한 안면윤곽술의 경우 수술시간은 2시간 내외이고, 입원기간은 3일 정도로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한다면 치아 교정과 함께 하는 진료로 턱뼈를 자르는 양악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만족할 만한 얼굴모양을 가질 수 있다. 누구든 전신마취를 하고, 얼굴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한다면 겁부터 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간을 내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치과 교정과에서는 치과에서 가장 손꼽히는 '미의 치료'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 사진을 찍을 때나 웃을 때조차도 이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교정치료를 생각하더라도 치아에 교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 치아교정은 부정교합을 정상교합으로 바로잡아주는 치료로 부정교합은 정상교합의 범주에서 벗어난 교합을 말한다. 부정교합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영향, 환경적 영향, 특정한 원인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교합의 치료로는 브라켓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얼라이너 장치(소위 투명교정장치: 이하 얼라이너)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브라켓 장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치아의 표면에 붙이는 장치로, 비심미적이고, 위생 관리가 어렵고,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양치시간이 길어진다. 금속 장치와 와이어가 치아에 항상 부착된 상태로 있어서 불편하며, 4~6주에 한 번씩 내원해야 한다. 반면 투명교정장치는 가철식이어서 좀 더 편안하고, 탈착이 가능하여 양치가 수월하고, 충치 관리에 용이하며 일반교정보다 충치가 생길 확률이 적다. 이물감이 없으며, 일반교정에 비해 통증이 적다. 내원횟수도 적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치를 제작하므로 치료 결과를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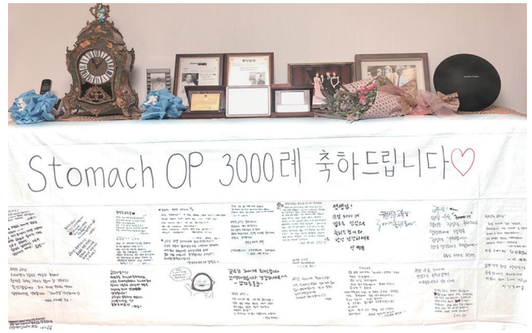
이러한 투명교정장치는 1946년 Dr. Kesling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아주 경미한 부정교합의 치료만 가능했다. 그 후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장치가 개발되고, 최근에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아를 알고리즘으로 자동 배열하고, 정밀하게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되었다. 과거와 달리 브라켓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정치료에 많이 근접하여, 대부분의 부정교합치료는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해야 하거나, 브라켓 등 교정장치 보이는 것을 꺼리는 성인의 교정치료에 적합하다. 또한 어린이나 소아의 경우에도 구강위생 관리가 어려운 브라켓 교정보다는 투명교정을 선호하고 있다. 병원에 자주 내원하기 힘든 경우에도, 본인이 주기적으로 얼라이너 장치를 집에서 스스로 교체하면 되므로 자주 내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생인 경우에도 6개월~1년에 한 번씩 내원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룩한 얼라이너는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브라켓 장치를 부착하는 교정치료를 망설이는 분, 혹은 과거에 교정치료를 했는데 재발되신 분들 등 다양한 경우에 추천할 만하다.

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권성준 교수의 위암 수술 집도 증례 수가 3,000례를 넘어섰다. 권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위암 수술 권위자다. 27년간 위암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달려온 권성준 교수를 만났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권성준 외과 교수, 위암 수술 집도 3,000례 돌파

27년간 수술장을 묵묵히 지키며 칼을 들어왔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집도해 나갔던 긴 시간들이 높고 장한 탑을 쌓았다. 1992년 6월부터 집계한 권성준 교수의 위암 집도 증례 수가 지난 10월 3,000례를 달성한 것. 위암 수술의 대가로 알려진 권성준 교수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1988년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다. 위암 치료를 전공분야로 정하고 일한 지도 어느덧 27년이 지났다. 권성준 교수는 "위암 수술 집도 3,000례 달성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세월이 쌓아준 수치"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수술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고개 숙이고 가슴 저려 했던 시간도 있었다. 지금껏 희비의 쌍곡선 위를 3천 번 이상 오르내린 셈이다. 그 경험은 그를 더욱 긴장하게 하고, 폭넓은 대비를 하게 했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기록은 따로 있다.

"병원에서 제일 먼저 출근해 환자 손을 잡아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 30분이면 병원에 나와 7시에는 회진을 돌았죠. 가능하면 환자 곁에 있는 보호자용 의자에 걸터앉아 환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요. 잠시라도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서면 환자들의 눈빛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위암 수술은 암 진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암은 진행할수록 점막층에서 장막층 쪽으로 파고들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혈관을 따라 다른 장기로 이동해 원격 전이될 수 있다. 초기 위암이면 내시경 절제를 시행한다. 원격 전이나 복막 전이 등의 소견이 확인된다면 항암화학요법을, 그 외의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수술 치료는 위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







환자에게 받은 편지에 그려진 그림

림프 조직을 포함해 위암 조직을 복부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섬세함과 집요함, 투지를 두루 갖춘 권성준 교수는 수술실에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맹장 수술같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실로 들어오는 환자의 얼굴은 예외 없이 긴장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암에 걸려 수술받는 환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하겠어요? 게다가 수술받을 부위를 탈의한 상태로 을씨년스럽기까지한 수술실에 들어오면 마스크와 수술복으로 무장한 마취과 의사, 외과 전공의, 간호사 등등 많은 의료진이 각자의 역할을 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제일 보고 싶고, 또 안심 받고 싶은 사람은 바로 자신을 수술해줄 집도 교수일 겁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수술방에선 환자가 이미 깊이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 교수가 등장하곤 한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의사들이지만, 권성준 교수는 "주치 교수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걱정 말라고 다독여준다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의 맥박수를 정상으로 떨어뜨려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시 쓰는 기록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의료계에 남은 큰 숙제다. 2018년 4월, 권성준 교수는 2010년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로슈 암학술상'을 수상했다. 권성준 교수는 수상논문을 통해 제4기 위암환자에게 근치적 수술 후 보조적 항암제 투여가 생존율 향상에 의미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물을 쉬지 않고 발표해왔다는 겁니다. 일례로 3년 무병 생존율과 5년 전체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고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 내, 종전보다 2년 일찍 새로운 치료법의 긍정적 판단기준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요. 하루가 시급한 암 환자 입장에선 2년 단축이라는 것은 보통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권성준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도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의사가 되라고 강조한다. 외과에 실습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 증례에 대한 막간 과외도 진행한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약 30분간 여러 임상적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며 짧게 주어진 정규수업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의료 인문학 강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인간을 연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찾는 인문학이야말로 임상 의사가 꼭 지녀야 할 소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암 완치 후 건강한 여생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신 환자의 가족에게서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분이 눈 감기 전에 평생 신세졌던 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자신을 수술하여 28년을 더 살게 해준 제 이름을 제일 먼저 거명했다고 하더군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희로애락을 지켜보며 저도 끝없이 배우곤 합니다."



환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희로애락을 지켜보며 저도 끝없이 배우곤 합니다.

위암 수술 환자의 아들에게서 받은 절절한 편지도 잊히지 않는다. 일평생 연탄을 팔아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가 병석에 든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그 아버지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꼬박 수술하는 권성준 교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일을 해줘 감사하다"는 말로 가슴을 뻐근하게 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권성준 교수의 수술복 주머니에 본인이 소중히 지니고 다니던 금반지를 넣어주며 '최선을 다해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딸의 그렁그렁한 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일종의 부적처럼 수술에 온 힘을 다하게 해준 그 반지는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날 자신이 쓴 손편지와 함께 금반지를 돌려줬다. 권 교수는 금반지를 내민 효도를 통해 많이 배웠다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사로서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하며, 새로운 기록을 예고하기도 했다.

"위암 외과 분야는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위암은 국내 사망 원인질환 3위에 속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인데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항시 관심 두고 생활한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자로 참여한 책들



침묵의 살인자 간암 불치병일까

배우 김정태와 간암

개구진 모습으로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며 충무로의 신스틸러로 주목받던 배우 김정태.
돌연 브라운관에서 사라진 그의 사연이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공개되었다.
배우 김수미에게 안겨 평펑 우는 그의 낯선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던 터.
1년간 그를 괴롭힌 병의 정체는 '간암'이었다.

정리. 편집실



인상적인 감초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19년 차 배우 김정태의 근황이 밝혀져 화제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김정태가 그간의 암 투병 생활에 대해 고백한 것. 배우 김수미와 동반 출연해 투병 생활에 대한 근황을 밝힌 그는 "다행히 지난 1년간의 간암 항암치료를 끝내고 호전된 상태"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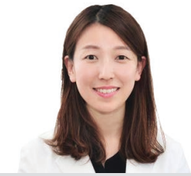
그가 돌연 간암 판정을 받은 2018년 10월, 일반적인 검진을 받던 그는 일반인의 간에 비해 30배 높은 간암 수치가 나왔다. 이후 출연 중이던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하차해 치료에 전념해왔다.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그는 배우 김수미와 과거 영화 '헬머니'를 통해 모자 지간으로 호흡을 맞췄다. 방송을 통해 5년 만에 상봉한 두 배우는 실제 모자와 같은 케미를 빚냈다. 특히 배우 김정태가 김수미에게 안겨 우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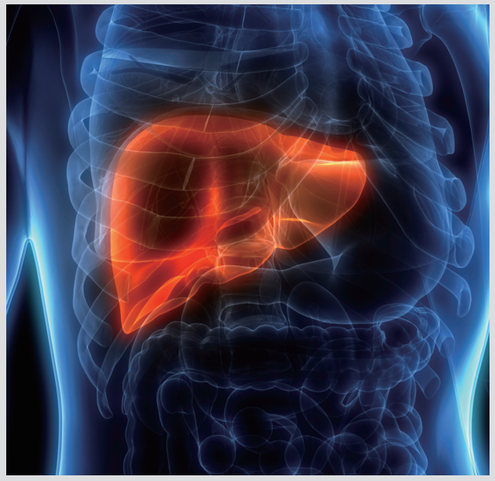
김정태의 눈물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집안 내력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 또한 배우 김정태가 무명배우 생활을 할 당시 간경화로 돌아가신 것. 배우로 승승장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은 그의 가슴에 한으로 맺혔을 것이다. 그런 그가 1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내고 방송에 복귀하는 날 친엄마처럼 건강을 걱정해주며 안아주는 존재는 더욱 특별했을 터. 김수미의 포옹은 그의 고생을 위로하는 엄마의 포옹인 동시에 돌아온 배우 김정태를 향한 묵직한 응원이 되었을 것이다.

따뜻한 포옹 덕분일까, 무사히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그의 행보는 가볍다. 최근 가족과 함께 출연한 예능 '이사야사' 속 그의 모습은 편안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준 아내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충무로의 신스틸러로 주목받아온 배우 김정태, 1년의 공백을 이겨내고 복귀한 만큼 타인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멋진 배우로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침묵의 장기 '간' 조기 진단과 정기적인 검사로 치료한다

안지현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간암은 암이 발생하고 진행된 경우에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고, 간암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특히 간암은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 사망률 1위, 국내 암 발생률 6위, 암 사망률 2위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다.

간암의 종류

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모두 간암이라 총칭하지만, 크게 간 고유세포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원발성 간암과 간 이외의 장기에서 시작하여 간으로 전이된 전이성 간암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간암은 간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과 담관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담관암종이 대표적이다. 원발성 간암의 약 90% 정도가 간세포암종이고, 일반적으로 간암이라 하면 주로 간세포암종을 일컫는다.

간암의 원인과 예방

간암(간세포암종)은 비교적 원인이 분명한 암 중 하나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은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간염 바이러스 외에도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어 섬유성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도 간암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간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B형 간염 및 C형 간염에 대해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하고,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는 음주, 지방간 등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암의 증상 및 감시 검사

간암은 암이 진행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여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른다. 일부 환자에서는 피로감, 무기력함, 오른쪽 윗배의 불쾌감 등이 있을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이나 피부/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만으로 간암을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암의 조기 진단과 완치 치료를 위해서는 간암 고위험군(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간암의 치료 방법

간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 간이식술, 고주파 열 치료,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제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특히 간암 환자는 간암 이외에 간염, 간경변증이라는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간암 진행 정도와 함께 남아있는 간 기능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간암의 치료법을 결정할 때는 간 기능을 비롯한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와 간암 병기를 고려하여 종양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건강한 도시 만들기 “함께해요!”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 구민들의 일상이 나날이 더 활기차고, 쾌적해지고 있다. 멈추지 않고 복리증진사업의 밀도를 높여가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덕분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의 협력기관이자 11년째 한양대학교병원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헌혈증을 기증해온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찾았다.

글. 윤진아 사진. 김재이









문의 : 02-2204-790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삶의 질 높이는 ‘한 수 위’ 복지사업

성실한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서울 성동구 한복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4년 창립 이래 16년간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 행복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체육센터·수영장·체험학습장 등의 체육사업과 어린이집·복지관·도서관 등의 문화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 쾌적한 성동구를 만들고자 최근에는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장기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는 “100세 시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라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더 많은 주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관내에는 지역주민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체육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성수동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마장동에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동에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 있고, 수영·헬스·에어로빅·재즈댄스·필라테스·요가·줌바댄스·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성인 스포츠 강좌도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모토 아래 생존수영과 심폐소생술 무료교육도 펼친다. 어린이를 위한 야구·농구·축구·발레·줄넘기·인라인 강좌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유아 체능단’은 신규 단원 경쟁률이 매년 5:1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등록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많다. 야외체육시설인 살곶이 야구장의 인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저렴한 대관료에 인조잔디, 관람석, 덕아웃 등이 설치된 살곶이 야구장은 연간 1만 5,000여 명이 대관해 사용하며 지역야구팀과 가족들의 건강 향상에 톡톡히 일조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체육센터를 찾아 건강을 돌보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아이를 믿고 맡기고 주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차별과 소외 없이 존중받는 ‘포용 도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 실천이 우리를 두근거리게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한양대학교병원과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이동식 헌혈버스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에 기증된 헌혈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우 및 성동구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지역사회에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양대학교병원과 2009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사랑의 헌혈증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555매의 헌혈증을 한양대학교병원에 기증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자, 가장 숭고한 사랑 실천 방식이라고 믿는 헌혈증 기증 사업에 10년 넘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 환우들 또한 아름다운 나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헌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멈추지 않고 참가할 계획입니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상생 프로젝트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사랑 실천 대표주자’라는 자랑스러운 이력을 올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이 멋진 릴레이에 언제나 든든한 주자로 달려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장기천 상임이사는 “공단 직원의 교통사고로 급하게 헌혈증이 필요했을 때, 전 임직원이 헌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귀띔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저희 직원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뇌 손상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도 십시일반 헌혈을 해 가족에게 기증했는데요.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수술로 지금은 무탈하게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척에 한양대학교병원이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동구 관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한양대학교병원이 생명존중 철학을 실천하며 펼쳐온 복지사업들은 민·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지요. 성동구도시관리공단도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더 건강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시대
미국 서부영화 같은 이야기



Dr. Opera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Wilhelm Richard Wagner Opera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마이스터징거(명가수)’란 14~16세기 중세 독일의 작사, 작곡 길드의 회원을 뜻한다. 업종별 조합의 대표를 뜻하는 ‘마이스터’와 가수란 뜻의 ‘징거’가 합쳐진 말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문법, 논리, 산술, 기하, 음악, 천문 등의 견문과 함께 다양한 소재들을 노래로 전한다. 이 오페라에서 바그너는 당시 실존했던 마이스터징거인 ‘한스 작스’를 등장시킨다. 그의 직업은 구두를 제작하는 장인이었다. 그는 다양한 소재로 6,000여 개의 시를 만들어, 당시 마이스터징거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예술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새 바람을 일으킨 존재였다. 바그너는 작스를 ‘예술적 창조력이 풍부한 국민정신의 마지막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독일의 명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해주시오! 당신이 그들의 노고를 존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성한 독일 제국이 멸망할지라도 독일의 예술은 건재하여 길이 남을 것이다”라고 부르는 작스의 노래를 통해 바그너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예술의 영원성’을 대비시키면서 독일 음악과 예술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했다.

독일이 프랑스와의 해방전쟁을 치룬 1813년에 태어난 바그너는 2차례에 걸쳐 혁명의 소용돌이를 겪고, 독일 통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혼돈의 시기를 거쳤다. 이런 그가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독일 음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2~13세기엔 귀족의 보호 아래 주로 애국적인 영웅의 치적을 노래하는 민스트렐(Minstrel)이라는 방랑 음악가들이 있었다. 북유럽에서는 방랑자들을 바르트(Bard), 방랑 가수들은 종글뢰르(Jongleur)라고 불렀다. 십자군 시대 이후 기사들 중 일부가 방랑 가수의 대열에 합류하여 프랑스와 스페인에선 이들을 트루바두르(Troubadour), 이탈리아에선 트로바토레(Trovatore), 독일에선 미네젱거(Minnesanger)라고 불렀다. 14세기에는 마이스터징거(Meistersinger)라는 음유시인들이 생겨났는데 ‘미네징거’는 귀족계급, ‘마이스터징거’는 서민계급으로 16세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16세기 중엽 뉘른베르크는 마이스터징거들의 본거지였다. 1835년 이곳을 방문한 바그너는 마이스터징거에 대해 철저한 고증을 한 후 이 작품을 썼다. 오페라의 줄거리는 젊은 기사 발터가 뉘른베르크의 노래 경연에 출연하는데 한스 작스의 후원을 얻어 베크메서를 물리치고 명가수의 영광을 차지하고 금세공업자 포그너의 딸 에바의 사랑도 얻게 된다는 소박한 내용이다.

제1막 젊은 기사 발터는 뉘른베르크에 와서 귀족 신분을 버리고 서민이 되고자 한다. 그는 금세공업자 포그너의 후대를 받으며 그의 딸 에바를 사랑하게 된다. 시종 막달레네는 발터에게 내일 개최되는 경연대회에서 승리한 자가 포그너의 딸과 결혼한다고 알려준다. 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모이자 포그너는 경기를 선언하면서 발터를 소개하고 발터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자 경쟁자 베크메서는 발터의 실격을 주장한다. 그러나 마이스터 작스는 그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한다.

제2막 작스와 포그너의 집 앞 거리 제자들은 성 요한 축일노래를 부르고 있다. 막달레네와 작스가 집에 돌아오고 포그너도 딸과 함께 저녁 산책에서 돌아온다. 그는 발터를 사위로 삼으려 하지만 실격되어 고민한다. 에바는 막달레네로부터 발터가 실격 당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 작스와 의논한다. 작스도 에바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녀가 발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단념한다. 얼마 후 발터가 찾아와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제안한다. 에바의 집 앞에서 베크메서가 세레나데를 노래하자 그 소리에 잠을 깬 다비드는 베크메서가 자기의 애인 막달레네에게 부른 것으로 오해하면서 질투하고 베크메서를 때린다. 소동이 벌어지고 다시 야경꾼의 피리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퇴장한다. 그때 포그너가 딸을 찾으러 오자 작스는 에바를 인도해 주고 발터와 집안으로 들어간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차분하고 아름다운 전주곡이 흐른다. 제1막 전주곡의 화려함에 비해 제3막 전주곡은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3막 작스의 작업장 견습공 다비드가 막달레네의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자 발터도 찾아온다. 발터는 작스에게 어젯밤 꿈속에서 쓴 시를 보여주며 노래한다. 감격한 작스는 그에게 경연 참가를 제안한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베크메서가 나타난다. 테이블 위에 있는 시를 보자 작스의 것인 줄 알고 몰래 주머니에 넣는다. 그때 작스가 나타난다. 베크메서는 작스에게 그걸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작스는 허락한다. 베크메서가 나가고 에바가 들어온다. 작스의 요청으로 발터가 노래하자 그의 노래라고 극찬한다. 잠시 후 다비드와 막달레네가 들어오자 작스는 발터와 다비드를 당당한 가수로 승진시키고 5중창과 함께 발터의 성공을 빈다. 뉘른베르크의 거리, 가수의 무대 나팔소리에 맞춰 견습공들은 춤을 추고 여러 단체 명가수들이 입장한다. 작스는 노래 경연의 우승자는 포그너의 딸과 재산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베크메서는 어젯밤 부른 세레나데에 맞춰 발터의 시를 노래하자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한다. 그는 원고를 작스의 발아래 던지고 청중들 사이에 숨어 버린다. 이때 발터가 나타나 “아침은 장미 빛으로 빛나고”를 노래한다. 모두들 그를 칭찬하며 명가수의 대열에 참여시키자 포그너는 에바와 발터에게 월계관과 함께 축복을 내린다. 작스는 발터의 깨끗한 정신을 찬양하고, 독일 예술을 존중하고, 마이스터들을 존경하라고 일동에게 노래한다. 모두들 독일 예술을 위해 합창한다. 발터와 에바가 포옹하자 포그너는 작스에게 감사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들을 만한 Album

드레스덴 국립 오케스트라 (EMI, 1970)
테오 아담(작스), 르네 콜로(발터), 갈리더부슈(포그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75)
노르만 베일리(작스), 르네 콜로(발터), 쿠르트 몰(포그너), 게오르규 솔티(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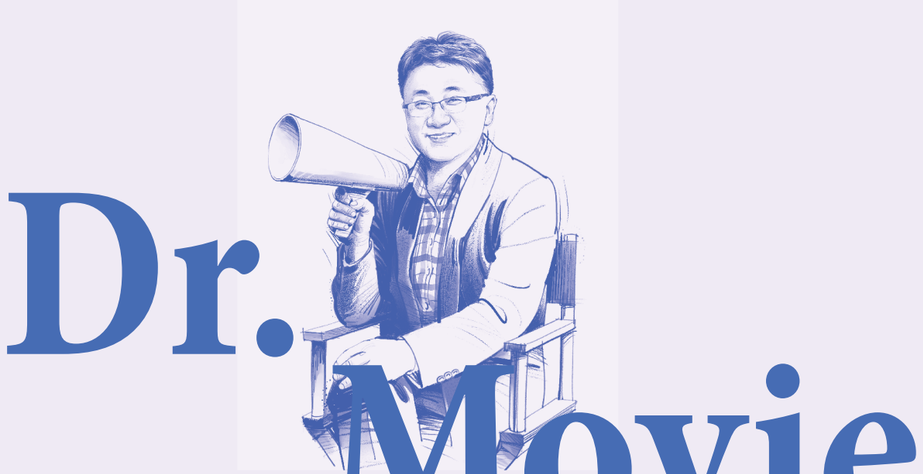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DG, 1985)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작스), 플라치도 도밍고(발터), 오이겐 요훔(지휘)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인간이 본래 착하다고?



Dr. Movie

내 인생의 영화 3

누가 그랬다. 재판 중에 최고는 인민재판이요, 사냥 중에 으뜸은 마녀 사냥이라고. 공동체의 이기주의와 집단 히스테리의 탄착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파생되어 인류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이 오래된 의식(儀式)은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멀쩡한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되풀이되는 비극적 역사는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극명히 드러낸다.

극한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게 낫다고 했건만, 미래가,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오늘 자고 난 후 닥칠 내일 아침이 두렵기만 하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고 채도와 명도가 높아질 하늘빛을 올려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칙칙한 아스팔트 바닥만 보아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젊고 예쁘고 능력있는 연예인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개별적인 삶의 목표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직업인으로서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넓히는 임무를 달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위치에 서면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말과 행동 하나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반인들이 있을 것이다. 칼보다 강한 것이 펜이고,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키보드 워리어들의 손일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자신에게 득도 되지 않을 일로 근거도 없이 타인을 죽이려고 들까? 사망 사건 이후 TV의 팩트 체크를 보면 그냥(심심해서), 혹은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관심받고 싶어서(좋아요 버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멍에(과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도 아니면 돈 잘 버는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지 라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인터뷰하는 댓글러와 기자들의 말투는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양심의 가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대개는 검증되지 않은 속칭 찌라시 수준의 괴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에서 생을 자포자기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일반인의 경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과시욕에서 비롯된 신상털기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무책임한, 아님 말고 식의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IT 세계최강국의 영예를 지속하고 싶은지.

이혼하고 고향에 내려 온 유치원 교사 루카스는 친구 테오의 딸인 클라라를 몇 번 집으로 바래다 준 적이 있다. 혼내는 아빠에 비해 다정다감한 루카스는 어린 소녀에게는 이상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어느 날 클라라가 유치원에서 남자아이들과 한데 뒹굴며 장난치며 죽은 척하던 루카스에게 입맞춤을 하자 이상함을 느낀 루카스는 조용히 소녀를 불러 왜 자기 옷 주머니에 선물을 넣었는지 물어보는데, 여기에 마음이 상한 소녀는 유치원 원장(마치 수녀원 원장님처럼 생겼다)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 루카스가 못 생겨서, 고추가 달려서 싫다고. 그런데 고추가 막대기처럼 앞으로 향해있다고(며칠 전 소녀의 오빠가 친구들과 장난할 때 얼핏 들은 이야기이다). 이 일 이후로 루카스의 삶은 악몽이 되어 버린다.

실제 사건에 근거한 <더 헌트>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에 기초한 작은 거짓말이 나비효과처럼 커져 파국에 이른 중년남자의 비극을 북유럽 특유의 건조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담고 있다. 일반적인 편견이 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아이들은 과연 순진하기만 할까?), 특정인을 향한 그럼 그렇지(미드 CSI를 보면 항상 범죄자 수사는 기왕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인식들. 이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여론은 TV와 신문이 형성했지만 최근 LAN선을 타고 어디든 삽시간에 퍼지는 소문의 실체는 금세 거대포털이라는 이름의 막강한 여론으로 이름만 바뀐 채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소아의 경우에는 부모와 카운셀러의 암시에 의해 조작적 사실을 현실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알려져 있다.

클라라는 자기가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고, 지어낸 말이었다고 엄마에게 말하지만 이 조차도 어린 아이가 충격을 받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에 의해 정말로 자기가 루카스 아저씨에게 나쁜 일을 당했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고, 이후 루카스의 집에 가서 말하며 울지만 누구 때문에 우는 지도 헷갈려 한다. 아이가 무섭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는 내내 린치를 당하며, 마을 공동체에서 차츰 지워지게 된다. 1년 후 아들의 성인식(사슴사냥을 할 자격이 주어짐)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슴사냥 도중 잠시 홀로 떨어진 루카스 옆의 나무에 누군가 총을 쏘게 된다. 태양을 등진 채 역광에서 그를 향해 조준하던 정체 모를 남자는 이윽고 조용히 총을 거두고 돌아간다. 결국 아직은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던 셈이다. 집단 광기의 결말은 진정한 팩트를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냥감으로서의 마녀가 필요하다는 섬뜩한 결말이다.

브라이오니가 남몰래 흠모하던 옆집 오빠(부유한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의 의대생 아들)는 그녀가 아닌 친 언니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하는 둘을 목격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에 어쩔 줄 모른다. 그날 밤 사촌이 겁간을 당하자 그녀는 의대생 오빠를 가해자로 지목한다. 오빠는 그 일로 감방에 갇힌 후 1차 세계대전에 차출된다. <어톤먼트>는 어린아이의 잘못된 짝사랑이 빚어낸 혹독한 결말과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두 연인을 안타깝게 그려낸다. 브라이오니는 평생 소설을 써왔는데 마지막 21번째 소설 제목을 속죄(Atonement)로 지은 후 현실에 기반한 소설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썼다고 방송 출연 중 말한다. 영화 어톤먼트의 속뜻은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자기속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기는 생각보다 쉽다. 무고한 피해자가 미처 대책을 세우기 전에 모든 일을 생각하며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실컷 배설한 후에 슬쩍 발을 빼면 그만이다. 그래서 인륜과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일을 과거의 경험에서 미루어 판단하기 때문에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 한 기억력이란 그리 믿을 게 못된다.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사람은 없는지 책임감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그래야 터무니없는 희생을 줄일 수 있다.

볼 만한 MOVIE



더 헌트(2012)
토마스 빈터베르그(감독)
매즈 미켈슨(루카스),
토머스 보 라센(테오),
수시 울드(그레테),
아니카 베데르코프(클라라)



어톤먼트(2008)
조 라이트(감독)
키이라 나이틀리(세실리아 탤리스),
제임스 맥어보이(로비 터너),
시얼샤 로넌(브라이오니 탤리스)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인상파 유일의 미국여성 화가가 앓았던 질환

메리 커셋의 당뇨 합병증



글. 박정환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19세기 프랑스 중심의 인상파 화가 중 유일한 미국화가이자 단 세 명의 여성 화가 중 한 명이었던 메리 커셋은 미국에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 역시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특히 <엄마와 두 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촉각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녀는 1911년 당뇨와 류마티즘, 백내장 등을 진단 받았으며, 1926년 당뇨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엄마와 두 아이들, 1906



Mary Cassatt

메리 커셋의 일생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상파 화가로는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세잔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 인상파 여성 화가로는 베리트 모리조, 마리 브라크몽, 메리 커셋 단 세 명이 있다. 특히 메리 커셋(1845-1926)은 여성의 미술활동이 쉽지 않은 시절 유일하게 화가 남편이나 가족을 두지 않고 성공한 유일한 여성 화가이자 프랑스 중심의 인상파 화가들 중 유일한 미국 출신 화가이기도 하다.

메리 커셋은 1845년에 미국 피츠버그 근교 재력가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어린 나이부터 유럽을 다니면서 화가들의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었던 메리 커셋은 화가의 꿈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그러나 더 깊은 미술 교육을 원한 그녀는 졸업 전 파리로 가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메리 커셋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그녀의 평생 스승이자 연인인 동시에 동지였던 인상파 화가인 드가이다. 드가는 메리 커셋과 죽을 때까지 스승인자 연인, 동지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녀는 미국에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 시리즈를 포함하여 자매들과 조카들을 모델로 하는 작품을 많이 그렸다. 메리 커셋은 1911년 당뇨와 류마티즘, 백내장 등을 진단 받았으며, 1926년 당뇨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많다. 당뇨병은 혈액 내에 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로 이로 인해 혈관 벽의 염증 반응 등이 발생하여 여러 합병증을 일으킨다. 결국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에 의해 삶의 질이 나빠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약 6년 정도, 심혈관계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약 12년 정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뉘며,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콩팥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미세혈관 합병증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의 거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을 경우 망막의 혈관들이 터지면서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황반이 파괴되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초기에 눈에 띄는 증상이 없고 시력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당뇨병성 콩팥병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콩팥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어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지속해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말기 신부전이 되어 콩팥 대신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혈액 투석이나 콩팥 이식을 해야 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2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콩팥병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형태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이나 감각신경 등이 높은 혈당에 의해 손상을 받아 생기는 질환이다. 자율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에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나 위장관의 음식물 배출이 늦어져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당뇨병성 위마비 등을 일으키게 된다. 감각신경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발의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불쾌감 같은 통증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당 조절과 함께 동반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잘 치료하는 것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사망 위험을 낮추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섬세한 보살핌과 치료 덕분에 무탈한 하루를 이어갑니다

신경과 권혁성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그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다.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통증이 찾아오기도 한다. 벼락같이 찾아온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치료였다.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강순애 님은 다시 무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감사함을 담아 권혁성 교수님께



교수님과 상담하면서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병원이라고는 도통 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들러 봐야 동네의 작은 의원 정도였습니다. 건강을 자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지난 10월, 난생처음으로 엄청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겨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한양대구리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로 빠르게 달려와 주신 교수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겪는 병인지라 두 차례 입원을 하고 치료받는 중에 어찌나 교수님을 번거롭게 했는지요. 늦은 밤에도 간호사 님을 통해 연락을 받아 주시고, 정성껏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보따리 풀 듯 쉬운 표현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오직 건강해지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치의와 환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퇴원 수속을 하면서 작성하는 만족도 조사를 편지지 삼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말았네요.

교수님과 상담하면서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차차 약을 줄여가더라도 건강관리는 스스로 해야 할 몫이겠지요. 앞으로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 강순애 드림

점점 더 건강해지실 강순애 님께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었지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신 강순애 님의 증상은 벼락두통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에 힘을 주었을 때 견딜 수 없이 심한 두통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증상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하셨던 활동과 갑자기 나타난 증상을 미루어 볼 때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잘 통하지 않아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데, 강순애 님에게도 가벼운 뇌경색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수술이나 시술 없이 혈관을 펴주는 약을 처방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 복용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는 경과가 좋아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강순애 님께서는 끈기 있게 치료를 받아 주셨어요. 몸 상태를 꼼꼼하게 수기로 기록해 저에게 전달해주신 것도 의사로서 더 나은 치료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 다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 후 최종 진단이 확정될 때까지 건강을 잘 관리해주시고, 혹시라도 증상이 재발하면 빠르게 병원으로 찾아 오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저도 곁에서 돕겠습니다.

– 권혁성 드림

유아기 스마트 기기 사용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 문진화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아기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미세운동 발달 및 언어 발달에 서로 다른 연관성을 보인다."

소아청소년 의학영역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Acta paediatrica』5월호에 게재된 논문
『Smart device usage in early childhood i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fine motor and language development』중에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우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응용한 장비는 휴대전화나 태플릿 PC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베이비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90% 이상의 유아가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늘어서던 줄이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콘텐츠를 체험하기 위하여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연령이 빨라짐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보고서(www.nia.or.kr)에 따르면 3~9세 아동의 과의존 위험군은 20.7%에 이르며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많은 비율로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아동 발달에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 스마트 기기는 TV, 비디오와 달리 상호 반응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어플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사용 특성을 보인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과잉행동/부주의한 정도가 스마트폰 사용환경과 관련있음과 스마트폰 과몰입이 심할수록 정서조절과 주의집중력,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와이파이(WiFi)나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건강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폐아의 적응을 돕는 여러 어플들도 개발되고 있다.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점 또한 다양하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하는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유아의 신체활동을 줄어들게 하고 스마트 기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걱정스럽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유아의 발달 관계 분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발달연구팀은 우리나라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과 여러 가지 발달 지표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2015년도 사용현황과 2017년 사용현황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들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 중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여러 발달 지표들 간의 객관적인 연관성에 대해 밝힐 필요를 느끼고 계획한 연구로서, 만 3~5세의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특성과 언어발달을 포함한 발달영역들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17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리 남양주 지역의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스마트 기기 사용현황과 이용수준에 대한 부모 설문지, 영역별 발달검사(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정서, 자조), 수용 및 표현언어 검사를 시행하였다.

적절한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 이루어져야

스마트 기기 사용관련 요인들은 유아의 발달영역 및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었고, 소근육, 언어, 사회성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만 3세 아동에서 스마트 기기를 더 장시간 사용할수록 표현 언어 발달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스마트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할수록 소근육 발달 점수(미세운동기술)는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 5세가 되면서 소근육 발달점수와의 연관성은 줄어들어 일시적인 미세운동 발달 속도의 차이이며 영구적인 차이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성 기술의 발달은 적절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패턴과 관련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적절한 유아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이 조기에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절대적인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

- 만 3~5세의 유아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관련 요인들과 발달영역 및 언어발달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 스마트 기기 사용관련 요인들은 유아의 각 발달 영역 및 언어발달 기술과 서로 다른 연관관계가 있었다.
- 만 3세 아동에서 스마트 기기를 더 장시간 사용할수록 언어발달이 더 느렸고, 스마트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할수록 미세운동기술 발달은 더 빨랐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2017R1D1A1B03034869)과 한양대학교(HY-2016)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다.


ACTA PAEDIATRICA

Smart device usage in early childhood i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fine motor and language development

Remarkable research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교수가 소아청소년 의학영역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Acta paediatrica』5월호에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미세운동 발달과 언어 발달에 서로 다른 연관성을 보인다'라는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2015~6년 구리· 남양주 및 서울지역의 3~5세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과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문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유아기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발달에 단순히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시간, 사용빈도 또 적절한 사용태도의 유무에 따라 발달영역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현재 바람직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부모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아리랑TV뉴스 **박정환 교수**
흑당라떼 인기, 한잔에 설탕 59g까지… 당 과다섭취의 위험



EBS 나눔 **배재만 교수**
희귀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엄마



KBS1TV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노영석 교수**
메마른 피부가 병을 부른다! 환절기 피부건조주의보



MBC 생방송오늘아침 **고주연 교수**
전국 비상! 공포의 화상벌레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장성호 교수**
약이 되는 걷기, 독이 되는 걷기



SBS 세상에이런일이 **김연환 교수**
얼굴이 혹으로 뒤덮인 남자



SBS 세상에이런일이 **김유정 교수**
얼굴이 혹으로 뒤덮인 남자



SBS 8뉴스 **김희진 교수**
"치매, 잘못이 아닌 노화 과정" 바뀌어야 할 인식

한양대학교병원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아리랑TV[뉴스] 10월 3일/ 흑당라떼 인기, 한잔에 설탕 59g까지… 당 과다섭취의 위험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EBS [나눔0700] 10월 4일/ 희귀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엄마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0월 4일/ 구강,목, 갑상선질환 **고주연 피부과 교수** MBC [오늘아침] 10월 8일/ 전국 비상! 공포의 화상벌레 **노영석 피부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물어보세요] 10월 8일/ 메마른 피부가 병을 부른다! 환절기 피부건조주의보, MBC [뉴스투데이] 11월 19일/ 지성 두피, 약산성 샴푸 써도 될까?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0월 10일/ 돌연사의 주범, 심혈관질환 **안성준 안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물어보세요] 10월 14일/ 모세혈관_점점 악화되는 눈건강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0월 16일/ 음성질환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0월 18일, 11월 15일 / 두통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SBS [8뉴스] 10월 28일/ "문만 열려도 두렵다"…'임세원법' 무색한 의료 현장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0월 30일/ 독감, 아리랑TV[뉴스] 11월 1일/ 독감, KBS Radio [건강365] 11월 29일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SBS [세상에이런일이] 11월 14일/ 얼굴이 혹으로 뒤덮인 남자 **김유정 안과 교수** SBS [세상에이런일이] 11월 14일/ 얼굴이 혹으로 뒤덮인 남자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월 16일/ 루머의 루머의 루머_누가 진리를 죽였나 **김희진 신경과 교수** SBS [8뉴스] 11월 23일/ "치매, 잘못이 아닌 노화 과정"…바뀌어야 할 인식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11월 28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10월 13일/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노인 인권 위한 목소리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1월 6일/ 약이 되는 걷기, 독이 되는 걷기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18일/ 췌장 아프면 당뇨까지?! 평생 건강하려면 췌장을 지켜라

2019년 10월 28일(월)


서울신문
독하게 아프기 전에… 늦어도 11월까진 예방주사 맞으세요

2019년 10월 29일(화)


朝鮮日報
체한 것 같은데, 심근경색이라고?
胃·심장 가까워 소화불량 등 비전형 증상도 동반

Newspaper

2019년 11월 12일(화)


朝鮮日報
중년 男에게도 흔한 요로감염, 추워질 때 조심해야

2019년 10월 11일(금)


朝鮮日報
뇌졸중 위험 높이는 '오존'… 안 보이고 마스크로 못 막아 더 무섭다

한양대학교병원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4일/ 부작용 없는 약 없다…'복용 1위' 위장약, 오남용 불감증 심각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10월 5일/ "자식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지.." 상실감에 멍든 실버세대, 세계일보/ 10월 12일/ '괜찮다'는 자기최면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10월 20일/ "한국은 게임 중독 사회" LA타임스 심층 보도, 조선일보/ 11월 25일/ "망자 팔아 인스타 홍보하냐""관종이네"…구하라는 끝까지 악플 시달렸다 **노영석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8일/ 발바닥 앞쪽 생긴 굳은살… 족부질환 때문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10월 9일/ 하루 50번 넘는 빚 독촉… 아빠는 '가족 살인'을 결심했다 **배재만 산부인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1일/ 20代 자궁경부암 계속 느는데… 인지율 낮고, 알아도 검진 안 받아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1일/ 뇌졸중 위험 높이는 '오존'… 안 보이고 마스크로 못 막아 더 무섭다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5일/ 건강똑똑, 名醫가 알려주는 '천식'의 모든 것, 조선일보/ 11월 26일/ 평소 기침 잦은 사람, 갑작스런 찬바람 주의 **김승현 신경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16일/ "올해는 덕수궁에서 추억여행 떠나요" 대한치매학회, 하반기 '일상예찬' 프로그램 시작, 한국일보/ 11월 4일/ [헬스 프리즘] 연구개발비중은 1위인데… 바이오 선진국은 왜 멀어 보일까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서울신문/ 10월 28일/ 독하게 아프기 전에… 늦어도 11월까진 예방주사 맞으세요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29일/ 체한 것 같은데, 심근경색이라고?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31일/ 환절기질환 오해하다 '골든타임' 놓쳐요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10월 31일/ '숙취해소제'의 배신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1월 12일/ 중년 男에게도 흔한 요로감염, 추워질 때 조심해야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서울신문/ 11월 17일/ 숨 쉴 때 가슴 통증… 기침.가래에 고열 동반하면 폐렴 의심하세요, 조선일보/ 11월 19일/ 흡입제 대신 먹는 천식약, 당뇨병 위험 높인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세계일보/ 10월 5일/ 소아과 의사가 쓴 클래식 감상평 큰 반향 **최호진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0일/ 치매 환자 이상행동, '향기'로 완화, 한국경제신문/ 10월 21일/ 치매약 건보혜택 제외?…환자부담 커지나, 머니투데이/ 11월 14일/ 치매약 놓고 의약사 '자존심 박치기'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일보/ 11월 25일/ 이른둥이 관찰 시스템 입법화 시급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11월 27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과다구입 환자 21명 경찰수사 의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조선일보/ 10월 15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 높다, 헤럴드경제/ 10월 15일/ 아침마다 손가락 뻣뻣하다는 아내가 걱정이다

HANYANG NEWS

2019년 11월 ~ 1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본원은 지난 11월 12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환자진료와 병원운영혁신, 의학연구 활성화 등 첨단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본원은 이 사업을 통해 양질의 연구데이터 확보와 환자 안전강화, 만족도 제고 및 정보보호 강화 등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감염관리 주간행사 개최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진행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6일 '호흡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제9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지난 12월 13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5회 감염관리 강조주간 행사 및 제3회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지역 1위'

본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서울지역 1위를 차지, '중증응급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내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평가결과 '1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19개 항목에서는 전국 3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위'라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실장 박현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전체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96.1점으로 1등급을 받아 최우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바이오의료의 비전' 국제심포지엄



본원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 및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 10월 31일 임우성 국제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바이오 의료의 비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브라운의대 이춘근 교수가 '키티나제: 폐섬유증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오래된 분자'에 대해, 2부에서는 HYU교책연구센터 이수재 교수와 전진용 교수가 '교모세포종에서 중간엽 이동의 미세환경적 조절', '바이브로 어쿠스틱스를 이용한 의료 솔루션 개발'에 대해, 세종병원 권준명 센터장은 '심정지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개소 3주년 심포지엄



한양발달의학센터(센터장 안동현)는 지난 11월 7일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개소 3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연구현황과 향후 진행방향'을 비롯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최동호)는 지난 11월 1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외과 하태경 교수가 '이식환자의 비만 관리',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가 '이식환자의 지방간 관리',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가 '신장이식 후 관리 및 정기검진'을 주제로 강의했다.

'췌장암 바로 알기' 주제로 건강강좌

본원은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지난 11월 2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췌장암 바로 알기'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소화기내과 윤재훈 교수가 '췌장암의 치료', 영상의학과 강보경 교수가 '췌장암의 영상진단', 외과 이경근 교수가 '췌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누리봄교실, '개교 14주년 기념식' 개최



병원학교(교장 이영호) 누리봄교실은 지난 11월 2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개교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3명의 완치 학생에게 완치 메달을, 학업에 열심인 학생에게는 모범상을, 자원봉사를 해온 현직 교사들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추계예대 국악 공연, 김영재 마술사 공연, 만찬의 시간 등을 가졌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

본원은 지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지난 11월 29일 재단 본부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의료산업과 의료학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향후 R&D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연구장비 및 동물실험 지원 등의 연구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거행



본원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기천)과 지난 12월 5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층 기획상황실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은 성동구 내 소외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증된 헌혈증은 본원에서 치료 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우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학제 진료의 최신 견해' 심포지엄



본원 암센터(소장 태경)는 지난 12월 7일 의과대학 본관 6층 TBL실에서 '다학제 진료의 최신 견해' 주제로 제6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태경 소장의 '다학제 진료의 소개: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의 최신 현황' 발표를 비롯, 총 3개의 세션에서 10여 명의 암센터 의료진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2019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 개최

본원 간호국(국장 성정순)은 지난 12월 12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올해 입사한 170명의 간호사들을 위한 '2019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11월까지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축하와 격려를 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 신경외과(과장 정진환)는 지난 12월 6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회 신경외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신경외과 정진환 교수, 류제일 교수, 한명훈 교수, 배인석 교수의 전문 분야 강의와 분당서울대병원 원유덕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심혈관질환, 통풍' 시민 건강교육

본원은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에는 심장내과 이용구 교수의 '심장의 적신호 심혈관 질환, 협심증 관리', 지난 12월 6일에는 류마티스내과 권혁희 교수의 '발가락이 아파요! 통풍인가요?'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졸업생 모임' 개최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실장 김창렬)은 지난 11월 8일 12층 중회의실에서 '제10회 신생아중환자실 졸업생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생아중환자실을 졸업한 환아 14명과 보호자가 참석했으며, 김창렬 실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특강 및 육아상담 등이 진행됐다.

안과 '눈의 날' 행사,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 안과(과장 성민철)는 지난 11월 13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영·유아를 위한 눈 건강 아이플러스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개최했다.
안과 조희윤 교수와 이정욱 교수가 '눈에 좋은 식품과 아이들 눈 건강 관리'에 대한 강좌와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안과는 지난 11월 26일 본관 12층 중회의실에서 '제27회 안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 홍은희 교수의 '약시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는 강의가 진행됐다.

개원 24주년 기념식 성료



본원은 지난 10월 3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24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동수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교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본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부서에 모범직원상과 우수부서상을 시상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전신홍반루푸스 유전학' 국제 심포지엄



류마티즘연구원은 지난 12월 7일 HIT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19 전신홍반루푸스 유전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배상철 류마티즘연구원장이 '한국인 SLE 유전학의 역사: 위험유전인자 발견과 그 너머'를 주제로 미래 루푸스 정밀의학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오프닝 세션과, 총 3가지 주제 세션에서 세계적 석학 10여 명이 최신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19 성과보고회' 개최

본원은 지난 12월 13일 본원 1층 로비에서 '2019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대현 병원장의 인사말과 전재범 기획분과위원장의 성과보고, 이형중 교수의 영화특강 등이 진행됐다.



본원은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강직성 척추염 등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동문과 전임의를 위한 실전 교육과 직원들을 위한 분기별 직무교육 등을 진행했고, 유대현 교수와 배상철 교수의 연구실적 우수 교원상 수상 등 진료, 연구,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했다.

인물동정



김용주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가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2019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용주·문진화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진화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과체중 및 비만 아동에서의 증가된 시각 과각성과 감소된 정신적 표상'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2019년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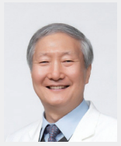
오재원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취임 및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대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지난 11월 2일 '2019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이다.
또한 오재원 교수는 지난 12월 14일 세계알레르기학회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꽃가루알레르기 위험성 증가'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해, 해외 연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수 교수,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김정수 교수팀이 지난 11월 9일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기후학적 요인과 병원 방문과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으로 자유연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영호 교수팀,
대한고관절학회
해외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김영호 교수팀이 지난 11월 29일 제21회 대한고관절학회 정기총회에서 '작은 골두 금속-금속 관절면 인공 고관절 치환술 후 가성 종양의 유병율과 자연경과'라는 논문으로 임상 부문 '해외 학술상'을 수상했다.



민경환 교수,
일본병리학회
국제 포스터상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리과 민경환 교수가 11월 12일 제65회 일본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한 위암에서 SLC2A1의 임상적 의의, 항암면역반응 및 표적치료제에 대한 연구'로 '국제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항락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가 11월 16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위장관 누출, 천공 및 천공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클립 시스템의 효과: 한국 다기관 연구'로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강형구 교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공로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형구 교수가 지난 11월 18일 장기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현경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가 지난 12월 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최한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성호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가 지난 12월 10일 '2019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우수연구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백광흠 교수,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백광흠 교수가 지난 12월 14일 '2019 대한의료감정학회'에서 대한의료감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이다.



강보승 교수,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출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승 교수는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부제 '한국인 30%에게 한 잔은 독'을 출간했다.



이도희 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QI팀 이도희 팀장이 지난 10월 28일 의료기관 '개원 9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임형택 파트장,
보건의료기사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임형택 파트장이 지난 11월 15일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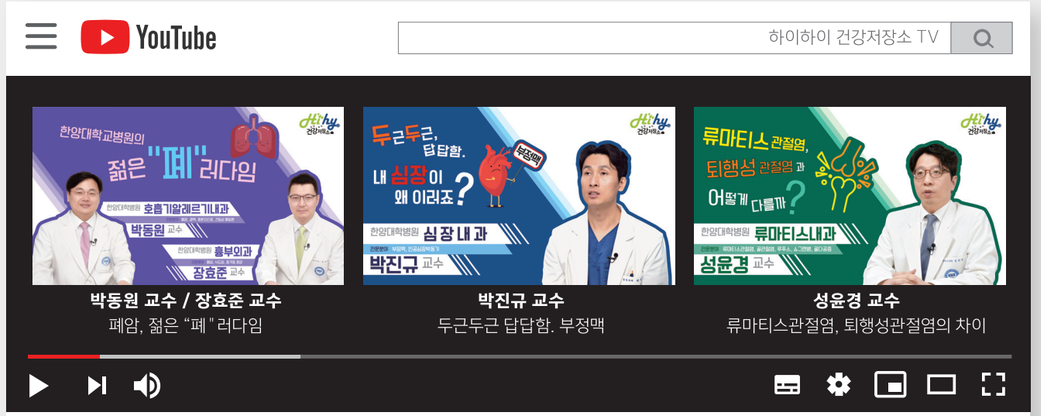


이명희 계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 이명희 계장이 지난 11월 21일 '감염병 관리 유공자'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Hihy 건강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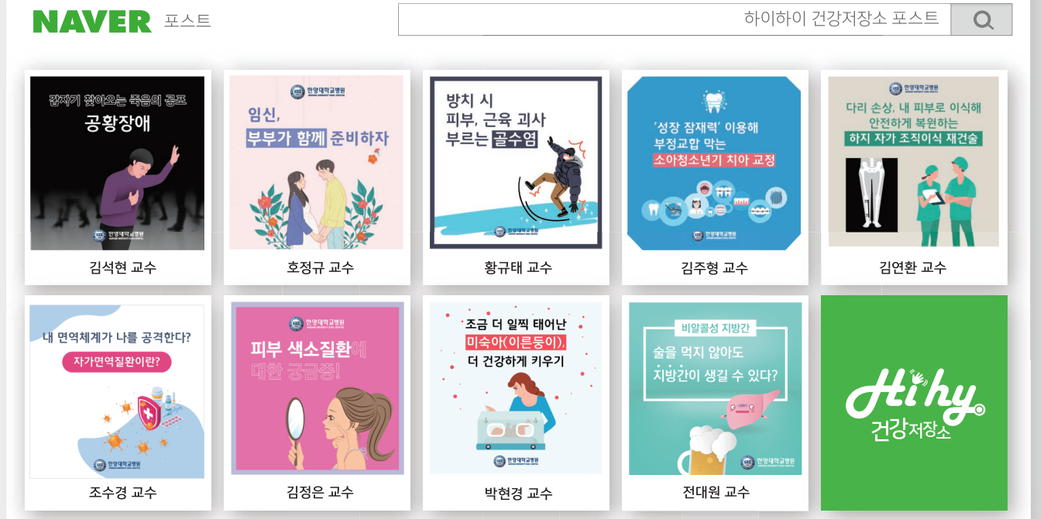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박동원 교수 / 장효준 교수
폐암, 젊은 "폐"러다임

박진규 교수
두근두근 답답함. 부정맥

성윤경 교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의 차이





YouTube
'한양대학교의료원(HYUMC)'
https://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s://post.naver.com/hyumc-pr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동행해주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김병제
송은유·예윤
차상석
하현영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디케이킴코리아
민병원
정자헌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박재일
유준호
윤여욱
이동규
이문우
이하은
임동휘
정진환
한주현
허웅
황규혁

1백만원 미만 ~5십만원 이상

김옥임
김재민
양정희

5십만원 미만 ~ 1십만원 이상

강일규
강정한
강창남
강형구

강홍구
고란주
고병우
고성호
고용
공동의
곽인영
구선완
국은영
김경중
김금옥
김남기
김대호
김도윤
김동윤
김문성
김성재
김승현
김양옥
김영보
김영수
김영애
김영호
김예슬
김옥중
김용수
김용호
김운용
김윤영
김이석
김정수
김지영
김창렬
김창선
김철웅

김충현
김태완
김태형
김한준
김현욱
김회숙
김희수
남승혁
남영자
남정현
노선균
노정환
노준모
류기영
류제일
문지용
문진화
문홍상
박기철
박동우
박예수
박용천
박원희
박일규
박찬혁
박창구
박태선
박혜경
박환철
박훤겸
박희정
박희철
반은주
백광흠
백운철

변순현
서승표
서우영
서정심
서정원
성명순
성민철
손주현
손한숙
송창면
신대현
신동한
신순교
신용운
신우종
신정철
신정훈
신태양
심경아
심재항
심지훈
안치원
여광호
염상철
염종훈
오미경
오영하
오재원
유교상
유미경
유정아
유창성
윤명희
윤여필
윤원구

은창수
이경섭
이경식
이경희
이광현
이규용
이두연
이봉근
이상현
이상훈
이성필
이승욱
이승환
이양섭
이영석
이유경
이은희
이장현
이제인
이종
이주학
이주한
이진규
이창범
이창우
이창훈
이형중
이혜순
이화준
임완예
임종선
장성호
장재선
장태원
전석분

전용철
전우재
전재범
전형준
정규성
정미선
정우성
정재호
정재홍
정진혁
조기섭
조상윤
조아라
조영훈
조주열
조희윤
주신환
지용배
채영림
최경진
최규선
최성환
최성훈
최완식
최정혜
최준호
최충혁
최호진
최홍용
하루미
한동수
한명훈
한상웅
한승훈
한주희

홍성숙
홍의호
황규태
황의순

1십만원 미만

강문주
강민아
강석범
강성훈
강신창
강윤성
강지원
공경숙
공지현
곽동원
권난희
권미화
권연희
권오균
권유진
권혁천
권현숙
김경수
김경숙
김경실
김경우
김광영
김기라
김나영
김대건
김도와
김동관
김란
김명환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성
김미화
김미희
김민정
김민정
김병숙
김보미
김상미
김상훈
김상희
김석현
김선영
김성철
김성훈
김소란
김수연
김순식
김아름
김애경
김애경
김연주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일
김영자
김영훈
김육원
김은미
김은실
김은희
김인호
김자윤

김재희
김정달
김정숙
김주희
김준식
김중식
김창금
김창복
김철한
김초롬
김춘애
김태근
김태호
김하연
김현주
김현진
김현창
김형근
김형석
김형주
김효준
김휘원
김희나
나소정
나인철
남기준
남순영
노광규
노옥석
노창완
류중백
명영숙
문상희

문영민
문재봉
문정희
문희애
박경림
박경미
박경숙
박경희
박근배
박미숙
박미순
박미옥
박상혁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성욱
박성찬
박소은
박수미
박수정
박순구
박연희
박용범
박유정
박은수
박은영
박은영
박은형
박응범
박주은
박지경
박지애
박진옥
박진희

박진희
박춘아
박현화
박혜정
방성주
배순석
배은희
백형정
서명진
서병갑
서소연
서승희
서승희
서영남
서현주
설명길
성경희
성혜윤
손영성
손진석
송은경
송주영
송현수
신명희
신미숙
신수지
신정미
신철우
심요라
안명현
안미경
안석태
안선미
안유정
안은종
안은진

안정미
안정은
양길녀
양미영
양수용
양은주
양정자
양호선
엄혜정
오금복
오기향
오미혜
오영숙
오유선
오정님
오홍석
오화경
오희순
옥상열
우순희
우정미
원혜정
원홍석
유고은
유미화
유병호
유선길
유숙
유영미
유은희
유정안
유주량
유지학
유헌영
유현주
육수영

윤선미
윤선애
윤아름
윤인숙
윤정희
윤지선
윤향순
윤현순
윤희정
음희재
이강연
이경은
이경철
이관석
이규택
이나영
이두종
이명숙
이명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정
이민진
이상미
이새롬
이서윤
이선화
이성모
이성미
이소연
이수연
이숙
이숙희
이순자
이승호
이연주

이영미
이예린
이윤미
이은경
이은명
이은애
이은주
이정식
이정애
이정은
이정인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종열
이주영
이주현
이주현
이진주
이현주
이현중
이혜정
이호문
이호용
임경순
임연희
임은실
임인자
임정연
임주아
임지영
임화영
장경희
장선정
장윤주
전경신

전효선
정경은
정기영
정대천
정선주
정선희
정은영
정일웅
정임증
정정미
정현정
정혜영
정훈
조구성
조규선
조은영
조인욱
조현교
조현일
조환영
지미경
지은아
지혜정
진춘희
천경희
천영복
천은미
천은선
최문정
최미옥
최민희
최선희
최성은
최세연
최소담
최승희

최신자
최영선
최윤희
최재범
최정연
최종석
최종은
최현구
최현주
최혜용
표은주
하경애
하은영
한상운
한승희
한아영
한정연
한현남
한현정
함명자
허정헌
허지영
허태영
홍대영
홍민영
홍숙의
홍은미
황성희
황영순
황정선
황준호
황희수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건강강좌

1/3	어깨통증의 이해-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20	호흡기알레르기	오후 12시 30분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2/7	멈추지 않는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22	루게릭병	오전 10시	한양대학교병원 본관 3층 강당

사랑의 음악회

1/29	피아노 연주	오후 12시 30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하 1층
2/15	예은 중창단	오후 2시 20분	
2/26	위드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 :**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 (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1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간질환
	이항락	금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해 외 연 수		
	윤재훈	월, 화, 토(2주)	목	담낭, 담도, 췌장
	박진화	수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대현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서원우	목, 토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여지현	월, 금	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해 외 연 수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수, 토(3주)	월, 목, 금	심장질환
	차승주			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이준한	목, 토(1,2주)	월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옹환	화, 목	월	당뇨병, 골다공증, 갑상선
	김동선	월, 수, 목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주)	수, 목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손영석	월, 토(1주)	화,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월, 화, 금, 토(1주)	화	기침,천식,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약물 부작용,면역치료
	박동원	화, 수, 토(3주)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목, 금	수,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정승준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김지윤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료)	화, 목	
	김용주	월, 화(내시경), 목,금(내시경)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수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김진섭	수, 금, 토(2,4주)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토(3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안자혜	월~금	화, 목, 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안자혜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뇌파판독), 목	월, 목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낙익염, 안면신경마비, 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수, 토(1,3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수, 토(2주)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이상곤	화, 토(1주)	월▲	일반 신경과질환
	최병우	토(3주)	화, 수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월, 금, 토(1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화, 수, 토(3주)	수, 금	
	이건석	화, 목, 금, 토(4주)	화, 수	양극성장애, 조현병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3주)	수,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토(1,4주)	화, 목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화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1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에크모, 심장이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교정,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최성훈	토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0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요통,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토(1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방지훈	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백승철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미용성형, 외상, 하지재건, 액취증, 안면부외상, 욕창
	양은정	월, 토(1,3주)	수, 목	안면외상, 화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유방성형, 미용성형, 안면거상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윤정수	수, 금	월	안면외상, 화상, 창상,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해 외 연 수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금지현	목, 토(2,4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임한웅	금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안성형
	안성준	수, 금, 토(1,3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금(구리)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류소정		금	일본망막질환, 눈물흘림, 안성형,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월(수술),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월, 수(어지럼증 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동환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토(2주)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토(1주)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소아비뇨기질환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 2020년 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황경균	월, 화, 수(수술), 목	월, 화, 수(수술),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월(수술), 화, 수(수술), 목, 금	화, 수(수술), 목,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권구현	월, 수, 금	월, 수, 금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수, 목, 토(4주, 격일)	월, 수, 목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송재철	화 수, 금, 토(4주, 격일)	화,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3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성 척추염, 퇴행성관절염
	성윤경	월, 수,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소그렌병
	최찬범	화, 수, 금, 토(3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조수경	월, 수, 목, 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강주연	수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지송	월, 목, 토(2주)		일반 류마티스질환
	남보라		월,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신정민	화, 토(1주)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연경	금, 토(3주)	화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임현영	화, 금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박희경	월, 목	목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이봉근		화	전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최성훈	월		퇴행성척추증,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추간판탈출증, 경추 척수증 및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노인성성후만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 2290-9550	이오영	목	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지료내시경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증
	박찬혁	목, 토(3주)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및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식도암 치료내시경
	안지현	수, 목, 토(1주)	화, 금	각종 간질환(지방간,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이재곤	화, 금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월, 화, 목, 금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심초음파)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부정맥(상심실성 빈맥, 상심실세동) 진단전기생리학검사 및 치료(고주파 전기자극 절제술 및 약물치료), 협심증, 인공심박동기 및 제세압동환 재세동기 삽입술
	김현진	금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선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신정훈	월, 수, 토(2주)	목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2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및 중증하지허혈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말기신부전클리닉
	이주학	화수(클리닉), 목, 토(2주)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부종클리닉
	유미연	월, 수, 토(1,3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풍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금, 토(2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월, 수, 목, 토(3주)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피부근염
	방소영	해 외 연 수		
	권혁희	월, 화, 금,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유현승	수,목,토(1주)	월, 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웅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수	중환자간호 폐렴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중추근 폐혈증 인공호흡기, 체외심폐보조요법(ECMO),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초음파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조민주			
중환자실 내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배인석	월~금	화, 수,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주)	월, 금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암(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 미숙아, 영아신경발달
	오재원	수, 금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최영진	월, 목, 토(1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양승	수,토(3주)	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화, 토(2주)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손저림,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2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1,3주)	월, 수, 금	뇌졸중, 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화(보건소치매),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횃병, 우울증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 화, 금(클리닉)	PTSD, EMDR, 불안장애
통증심리클리닉▲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신경영상학, 조현병, 조울증
	이호선	월, 화, 토(2주)	수, 금	일반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류제일	화, 수, 토(3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방사선수술
	배인석		월, 목	일반 척추질환, 두부외상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 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수, 금, 토(3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수, 목, 토(2주)	화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화, 목, 토(3주)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조영훈	화, 토(1주)	월, 목	견주관절, 스포츠 손상, 회전근개 질환, 골절 및 외상
산부인과	류기영	월, 토(2주)	화, 목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부인암, 고위험산모
	부혜연	화, 목	금	정상임신, 고위험임신(임신성 당뇨&고혈압, 다태임신, 임신중독증, 태아이상-유전진단 및 상담)
	최윤서	토(1주)	수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일반 부인과
성형외과	유재만	목	화	일반 성형외과
	이장현	월, 화, 토(2주)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유방성형,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홍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족부괴사,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탈장
	박훤겸	목	화, 금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목	월, 수	대장항문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임한웅		화(1,3주)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김유정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홍은희		월, 화(1,2주) 목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성형안과
	이정욱	화, 목, 토(1,3주)	화(3,4주)	성형안과, 일반안과, 백내장
	강민호	해 외 연 수		
피부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건선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김영균	화, 수	금	일반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안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금, 토(2주)	월,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이윤재	수	월, 금	비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김무건	목, 토(1주)	화, 목	이과, 두경부질환 및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2주)	화	종양, 남성과학, 복강경수술
	김규식	월, 토(1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발걸음클리닉▲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관절염, 목통증, 발통증), 스포츠 의학, 소아재활,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월	금	근골격계재활, 일반 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치과	박원희	월~목, 토(1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2,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 질환,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안전동력입니다

AM 1:15

장기이식센터 남민경 코디네이터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한 사람의 공여자를 찾는 것은 새로운 생명 길이 트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도록 신장 투석을 받으며 일상생활이 어렵던 환자가 신장 이식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볼 때, 간암이나 간경화로 위독하던 환자가 간 이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남민경 간호사. 기증의 숭고함을 전하며 공여자를 발굴하고, 수여자에겐 삶에 희망을 선물하는 그의 상담실은 오늘도 새벽까지 밝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